



각 보고서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 보도 자료

###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평균 1.98% 인상, 5개 단체와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06.0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결과 2024년도 평균인상률 1.98%(추가 소요재정 1조 1,975억 원),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은 타결되었고 의원, 약국 유형은 결렬되었음

### [소비자 경보] 도수치료를 가장한 성형, 피부미용 시술 증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당부

금융감독원

2023.06.09

성형, 피부미용, 영양주사 등의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침

### '22.12월말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

금융감독원

2023.06.14

'22년말 현재 6개(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186.5%로 규제비율(100%)을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함. 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 별 건전성 상황 및 IFRS17, K-ICS 도입 등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목표 자본비율 관리 등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임

보험회사 IFRS17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23.1월)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에 대한 보험계리법인 등의 외부검증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은 '23.2월 부터 계리법인, 회계법인, 보험업계 등과 공동작업반(T/F)을 구성하여 보험계리법인 등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강화, 제도개선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2023년 5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23.5월중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2.8조 원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Delta 1.4\%$ 로 '22.11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잔액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증가하였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하였음. 제2금융권의 경우, 보험(+0.4조 원)·여전사(+0.4조 원)는 소폭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 $\Delta 2.2$ 조 원)·저축은행( $\Delta 0.03$ 조 원) 위주로  $\Delta 1.4$ 조 원 감소하였음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개최 안내

「미래의 핀테크와 만나다」를 주제로 8월 30일(수) ~ 9월 1일(금), 3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 예정임.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 공유 및 교류를 촉진하고, 사업모델 홍보와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등 핀테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축제의 장으로 조성될 예정임

## 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 「회계제도 보완방안」 마련 -

금융위원회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음. 보완방안은 ❶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5년, '24→'29년), ❷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직권지정사유 정비(현 27개 중 16개 사유 완화), 주기적 지정제는 당분간 현재대로 유지하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 시점에 개선 여부 재검토, ❸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강행규범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성격 명확화임